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롬 12:15

418

2019.12.22

청년숲 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_ 에베소서 2:22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청년사역의 현실
- 3면 청년부 2019년 활동
- 4~5면 청년부 소개
- 6~7면 비전트립 보고서
- 8~11면 청년부 간증
- 12면 아기나들이

교회일정

- 12/22(주일) 대림절 4주 / 성탄가족예배
- 12/25(수) 성탄예배 / 성탄찬양예배
(칸타타)
- 12/31(화) 송구영신예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하나님 사랑 안에 푸른나무로 우뚝 선 청년숲

청년숲 특집 | 청년사역의 현재

캠퍼스 선교단체의 붕괴와 청년 가나안 성도

가속되는 청년 사역의 위기

청년사역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지만, 그것을 지표로 보여주었던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 발표 설문조사 결과(2012년, 2017년)를 보면 붕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이다.

기독교 청년만 감소

학복협의 2012년, 2017년 설문조사를 역추적해보면 청년대학생 복음화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17.2%)

수목 암울해 2020년에는 175만명으로 줄어들며, 2030년에는 131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가나안 성도의 증가

청년대학생 사역의 상황이 더 어려운 이유는 청년 가나안 성도의 증가이다. 2017년 학복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대학생 3명 중 1명(28.3%)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였다. 자신을 기독교대학생이라 말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비율이 30% 정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치이다. 기독교대학생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 때문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5.5%가 '학업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24.2%), '신앙에 대한 회의'(10.1%)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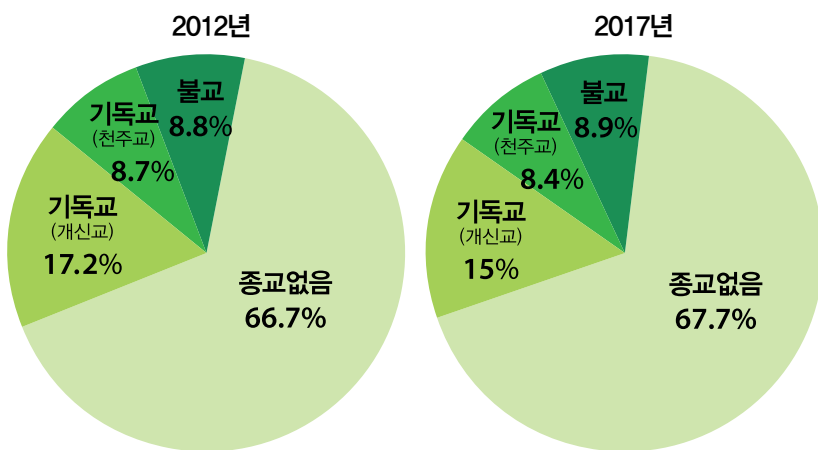
1주일 기도생활 역시 2012년(59분)의 절반 수준인 31분에 지나지 않았다. 한 주간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거나(63.7%) 기도를 하지 않는(38.3%) 기독교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90년대의 청년대학생들은 교회(주말)와 캠퍼스(주중)에서 일주일 내내 훈련과 양육, 보호를 받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주일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적 성장보다 청년들의 삶에 초점을

이전의 선교단체와 교회의 훈련과 양육은 한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프로그램과 숫자 늘리기에 더 집중하였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대의 의식과 현실적인 고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더 개인화되는 세대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자신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인식되면 바로 다른 대안과 공동체를 찾는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현실의 고민을 들어주고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교육과 훈련이다.

〈표 1〉종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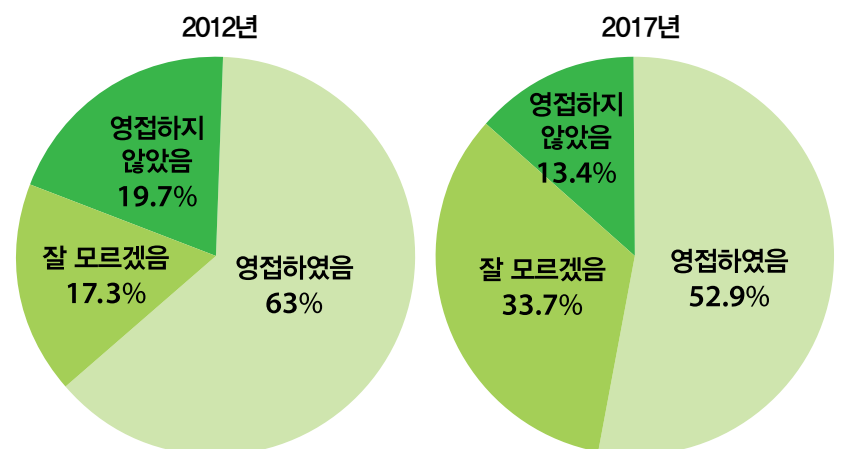
청년대학생 선교단체의 부흥기는 1990년대를 정점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부흥의 시대가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선교단체 1~2곳을 빼고는 대다수가 붕괴 위기이다. 1990년대 후반을 100%로 가정하면, 10년 뒤인 2009년에는 50%로 하락, 또 다시 10년 뒤인 2019년에는 10%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뜻이다. 불과 20년 만에 청년대학생 복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붕괴됐다.

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다. 반면 무종교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신자는 증가했다. 2012년에 비해 천주교는 1.1% 증가한 8.4%였으며, 불교는 0.1% 증가한 8.9%였다. 무종교도 66.7%에서 67.7%로 증가했다. 복음화 감소는 저출산을 만나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숫자는 2011년 204만명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는 미래로 갈

출석 청년들의 흔들리는 신앙관

더 암울한 것은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의 신앙관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

〈표 3〉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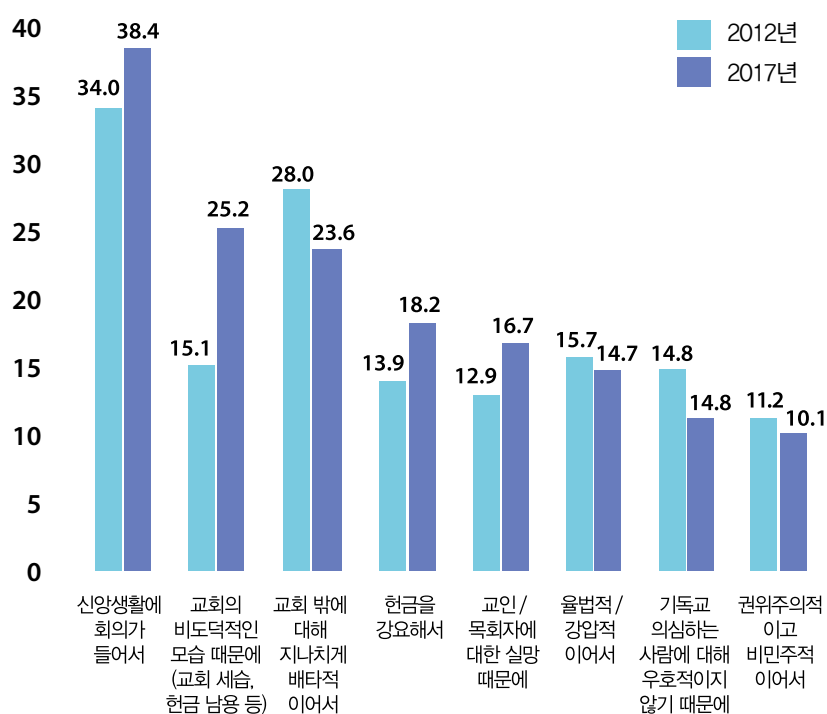


독대학생 2명 중 1명(52.9%)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영접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2012년)에서 33.7%(2017년)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기독교대학생들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흔들리는 신앙관은 경건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경건 생활인 성경읽기는 1주일 동안 24분에 그쳤다. 2012년 조사에서 64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더 세밀하고 민감하게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다. 이 모순은 청년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이다. 교회는 청년들이 바른 복음 위에 삶을 세우도록 돕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년부**

〈표 2〉교회를 떠난 이유 (단위 %)



뭉쳤다, 날았다, **주님의교회 청년부**



청년순 특집 | 청년부 소개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소개합니다!

임원단

임원단은 회장 및 부회장, 1, 2부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된 청년부 구성원들의 대표로서, 가을에 진행되는 1, 2차 총회를 통해 선출되어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섬깁니다. 청년들의 의견 수렴 및 교역자와의 소통, 각 사역부서 및 팀의 역할과 일정 조율, 청년부에서 필요한 행정 분야의 섬김을 맡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같은 전체 단위의 행사 및 각 부서별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사역부서 및 팀별 추진 상황을 돕습니다. 매주일 예배준비모임과 매월 전체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주님 안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

예배진행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세지, 예배진행팀입니다. 저희는 예배당 정리 및 세팅, 성도분들 맞이하기, 성도분들 자리 안내하기 등 원활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예배 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다같이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뿌리사랑 방송팀

뿌리사랑 방송팀은 청년부 예배에 필요한 방송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청년부 예배당 뒤편 방송실은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음향기기를 조작하고, 예배 각 순서에 맞는 피피티 화면을 띄우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방송장비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시작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며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찬양팀



새벽이슬 찬양팀

'새벽이슬' 찬양팀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배에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찬양사역팀입니다. 매주 토요일 연습모임과 주일 청년부 예배찬양을 섬기고 있으며, 연 2회 청년부 수련회 찬양과 요청이 있을 때는 외부 사역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편 110:3)" 말씀에 따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찬양팀이 되길 소망합니다.



브릿지콰이어

함께 찬양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브릿지콰이어팀입니다. 청년합창단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성가대로 매달 한 번씩 특송을 준비하며, 비정기적으로 로비 음악회 및 크리스마스 칸타타, 청년주일 청년부 단체 합창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양

양육부

양육부서는 청년들의 신앙 양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양육팀과 코셀리더로 나뉘져 있습니다. 양육팀은 겨자씨 모임이 원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리더 교육과 겨자씨 모임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겨자씨 리더들을 섬기는 코셀리더는 겨자씨 리더들의 삶과 신앙을 돌보고, 리더들이 겨자씨 모임을 풍성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새가족부

저희는 매주 청년부 예배 전후로 중예배실 로비에서 처음 오신 청년들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초신자이신 분들은 기초신앙교재를 가지고 따로 교육이 진행되고, 기신자이신 분들은 기존 청년부 겨자씨와 같은 방식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교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달에 한번 리더들과의 아웃팅을 통해 특별한 교재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는 양육하고 있는 새신자들과 함께 새가족부를 섬기는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선교

통일선교팀

청년부의 통일선교팀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남북 청년들과 장년분들이 함께 모여 말씀 묵상을 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장년분들과 하나원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가기 전날, 청년들끼리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성 하나원에 가면 청년들이 어린이 예배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화천 하나원에 가면 또래 청년들과 말동무가 되어 공감하고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통일선교팀은 매년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DMZ에 방문하여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며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고대합니다.



문화

프리즘 사진팀

청년부의 사랑스러운 매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리즘사진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주 예배 및 행사의 사진을 촬영해 공유, 저장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나 특별한 행사 때에는 사진전을 열어 뽑은 사진을 나눠주고 함께 감상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민감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배려하고 시험에 드는 지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유익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선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청년숲 특집 | 비전트립 보고서

통일선교의 교두보, 러시아

2018년 한 해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며 점점 안타까움이 깊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국제 정세와 여러 상황들로 막혀 있던 국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에 그 생각이 깊어지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세 위에 통치하는 분이신데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마중물 선교를 다녀온 것은 지리적 특성이 아닌 그곳에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분들이 있는 다른 곳에 가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드

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며 열어주셨습니다.

막혀있던 통일선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했기에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설사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 목사를 통해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비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부르셔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공부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다는 비전에 대한 소망 역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셨습

니다. 그곳의 여러 변수들로, 떠날 때까지도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였지만, 오히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훈련을 허락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짧은 기간 다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담아주셨습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전해주시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널리 퍼지도록 힘쓰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보며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담아주신 것부터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선물을 예비하시고 함께 사 용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과정 중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해림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비전트립 보고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증거, 싱가포르

20대 때 저는 국내 및 해외 단기선교들을 다니며, 늘 항상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역이 없는 비전트립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사역 준비로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제 모습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고민하며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한 분께 고민 상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냐고. 그러나 그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승원아, 비전트립은 원래 이런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많이 보고 느끼고 누리고 오면 된다.”

돌아보면 제 삶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저의 일상 속에서도 저는 쉬며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워커홀릭’이 되어있었고, 내 앞에 있는 ‘일들’에 시선을 빼앗겨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을 때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수님 곁에 앉아있지 못했던 마르다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번 싱가포르 준비

과정과, 현지에서의 모든 시간은 제가 살면서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정말 모든 시간을 그저 흐르는 대로, 부여주시는 대로 누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있던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저희는 이슬람사원, 힌두교사원, 불교사원, 도교사원 등의 여러 종교 사원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차이나타운 등을 둘러보며, 그리고 그들의 사원을 방문하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힌두교 사원을 들어갔을 때, 저는 그들이 믿는 신상에 너무나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했고, 진중했고, 깊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은 비록 우상에 불과한 신상에 저렇게 진지하고 정성스러운데, 나는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너무나 가볍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화와 종교들을 접하고, 주일날 ‘뉴크리에이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그 여러 문화들, 각각의 마을들에 흩어져있던 그 많은 인종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있었습니다. 비록 각각의 문화는 서로 분리되어있지만, 그 분리된 문화들을 하나로 연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던 대학생 시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승원아, 저 산의 나무들을 보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런데 저

다른 나무들이, 나뭇가지들이, 서로 하나를 이루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것을 보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이치란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란다. 나는 이 세상을 전부 다르게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름답게 연합한단다.”

이번 싱가포르 비전트립을 통해 주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김승원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비전트립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 베트남

청년부에게 베트남이라는 땅은 굉장히 익숙한 땅이다. 많은 청년들이 매년 추석마다 베트남 빈롱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갔으며 그 곳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간증하며 살았다.

나 또한 매년 선교단체를 통해 가다가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11명의 청년과 전도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다. 팀장이라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베트남에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 이전에 나의 삶에서 야생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만나고 간절히 붙잡고 싶었다. 이 가운데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로 나아갔다.

약 3개월 정도 청년들이 매주 모여서

사역을 준비하고 같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베트남 땅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커져갔고, 내 스스로도 나만의 힘으로 일처럼 처리하려던 사역들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맡기며 이끄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팀도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동등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정말 복음 그 자체로 기뻐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두 채의 집에 페인트칠을 하고, 학교에서 위생을 진행하고, 복음팔찌를 선물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짧은 사역의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으며, 하나님의 작지만 느리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 와 닿게 되었으며,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며 베트남 땅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짧은 단기선교를 통해 그 땅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언어적 문제,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넘어서 그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았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느끼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도 그 감정들을 잘 소유하고 살아가려 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팀원, 전도사님, 선교사님 가정, 베트남과 그 이외의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Cảm ơn..

이경태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비전트립 간증

‘함께’의 가치를 배운 비전트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트남에 가면 선교사님께서 꼭 해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도 작고 연약한데 내가 감히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자꾸 움츠러드는 저를 깨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선교를 신청했을 때, 처음 베트남에서 이 말씀을 듣고 베트남에 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베트남 땅과 그곳의 형제자매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트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갈수록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느리고, 어리버리하고, 손 많이 가는 제가 베트남에 갈 때마다 과연 팀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꼭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팀원들을 볼 때마다 더 작아졌습니다. 난 선교를 가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베트남을 마음에 품게 하실까? 세 번쯤 가면 그래도 잘하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하는 친구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마지막 날 저의 어려웠던 마음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선교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교사님께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도 말로 창조하셨는데 구원도 말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효율성이 아니라 ‘함께 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년 사역을 위해 30년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일이 서툴러도, 베트남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의 힘도 기쁘게 받아 주시겠구나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베트남 단기선교도 어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체류비를 모두 모아 집짓기를 몇 채 더 하는 게 더 큰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있음’이 빠져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몇 번 만나기 위해 저희가 세 달 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문화 사역들, 그것들 또한 누군가는 효율적이지 않다



고 할 수 있지만 그 몇 달의 준비를 통해 잠깐이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내가 무슨 큰 힘이 되겠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멀리 해외가 아니라도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함께 있어 주고 싶은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정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기수모임 소개

청년부 기수모임을 소개합니다

기수모임이 무엇인가요?

다양한 연령의 청년들이 모이는 겨자씨모임, 연합모임 등과 다르게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모여 삶 나눔과 교제를 하는 모임이에요.

언제 모이나요?

분기별 1번씩 모여요! 모이는 시간은 청년부 겨자씨모임과 동일하게 예배 후 1시간 내외예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새가족을 포함하여 청년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등록되어있지 않은 청년들도 참여를 원한다면 예배 후 새가족 데스크에서 신청하여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어요.

기수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수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기수장이예요. 기수장은 기수의 대표자로서 기수 인원 관리와 및 기수모임을 진행해요. 새가족으로부터 새로운 기수 인원이 오면 기수모임 토크방에 초대하고, 참여 인원과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수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겨자씨모임에 정착하기 어려워하는 지체들,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을 누려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

들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수모임을 통해 맺어진 관계들이 나중에 리더나 사역팀원으로 세워

짐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부

청년숲 특집 | 청년부 활동 소감

2019년을 보낸 청년들의 한 마디

2019년 청년부 막내 소감

나는 올해 20살로 처음 청년부에 올라왔다. 유년부에서 사역교사를, 청년부에서는 예배진행팀과 1부 겨자씨 부리더로 이번 한 해를 보냈는데 어떤 사역을 하든 막내여서 언니·오빠들이 정말 잘 챙겨줬다. 신앙적으로는 물론 나 자신으로서도 중심이 뿌리내리지 못해 어려움이 닥치면 잘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붙잡아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은 베트남 단기선교다. 그동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베트남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베트남에 갔다 온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2019년은 청년의 때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불 지피는 한 해가 된 거 같다.

강현서 / 청년부

유년부 섬김 소감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포도나무 유년부에서 3년 반 동안 교사로 섬기면서 사랑에 대해 다시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하려 하였지만 사랑이란 감정에 이기심이 따라와 올바른 사랑을 방해했습니다. 후에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올바른 사랑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고 내려놓음 사이를 헷갈리고 그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전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다시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 청년부

기수모임 소감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당당히 ‘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 청년부 기수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는 나이를 기수로 표현합니다. 같은 기수는 동갑 친구를 뜻하고, 기수 모임은 교회 속 동갑내기들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저는 대구의 작은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수는 거의 없었기에 오히려 어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동역자인 신앙의 대선배는 많았으나, 아쉽게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교회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려본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수 많은 청년들 가운데 기수모임을 통해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과거와 현재를 나눌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무엇보다도 함께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청년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주님의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방신에게 올린 음식을 먹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

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위해 섬길 때,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반석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2019년의 청년부

2019 주님의교회 청년부의 감사한 나날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 것”

“베트남 선교, 임원단으로의 섬김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하큰 감사였습니다!”

“안성 하나원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해 어린이들과 함께 울동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림에 그리고 화천 하나원 예배에서 탈북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요! Soli Gloria Deo♥”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랑 기수 모임을 통해서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을 교제하는 순간이랑 혼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 : 새로운 교역자 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청년부를 더 크게 부흥해가실 거라는 기대를 주셨어요 ㅎㅎ.
2) 교역자분들께 : 한 해 동안 적응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착박한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함께 키워나가시느라(?) 감사했습니다당 ㅠ ㅠ ㅠ
3) 임원단 :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피로와 수고 덕에 차기 임원단이 수월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ㅎㅎ.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찬양팀 : 2019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많이 회복되었고, 회복하고 있고, 회복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부가 다 그러고 있으니, 우리 모두 파이팅 ^_^”

“항상 밝은 모습으로 청년들을 맞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고 귀한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김영한 목사님을 만난 그 순간이 제 일생에서 제일 감사합니다.”

짧은기간 함줄함줄 청년기자 및 서기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를 통해 교역자분들을 비롯한 공동체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의 첫 해! 청년들을 위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김영한 목사님, 김종희 전도사님, 임성광 목사님, 이진명 전도사님 그리고 새롭게 함께 하시게 된 김세연 전도사님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전 뜨끈한 국수 한 그릇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립니다. 매주 주방에서 수고하며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섬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 펼쳐진 푸른 잔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시아공원”

“이번 하반기의 배한나 셀모임 리더를 통해서 저는 매우 무척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유학 전에는 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였다면, 유학생활 동안 만난 귀한 한인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시간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방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 그리고 본이 되어주신 집사님들, 목사님을 통해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귀국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우리 교회 청년부에 대한 마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청년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청년부에 나가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청년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감사하게도 코셀리더라는 자리에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나고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은 제겐 힘들어 아니라 즐거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섬기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며 배웠던,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세상에서 치이고 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다르지만 각기 다르게 창조된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한 공동체, 건강한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다섯 번째 복음서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숲 특집 | 사역 간증

이토록 소중한 공동체, 겨자씨

그동안의 겨자씨 모임을 돌아보며 감사한 기억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 풍성했던 교제의 시간들에 감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 시간이 모두 지난 후 다시 헤아려보아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임에서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겨자씨 모임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이 누리길 바라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처음 겨자씨 리더의 자리로 서기 원했던 솔직한 이유는 게으른 제가 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지라, 매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저 스스로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성화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저에게도 주님께서 참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을 자격 없는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참 볼품없는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저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마주하고 반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난 감사의 기억들을 양분 삼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주님~ 매주 주일 같은 시간, 저희들의 모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공동체를 조건 없이 저희에게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찬미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사역 간증

많은 것을 배운 고등부 교사

고등부 사역을 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고등부를 갖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역교사를 시작하였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사역교사를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초반에 사역은 생각과 다르게 어렵고 막막한 상황들이 많았다. 나 또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녔기에 교회 사람들도 친구들도 잘 모르고 신앙 또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만큼 단단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샘모임을 하거나 수련회에서 나눔을 할 때 항상 모든 순간이 긴장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전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존재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복음을 꼭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점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소한 일상 나눔을 하면서,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사이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굳이 매번 모든 대화에 하나님이 없더라도 얼마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감사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내가 사역교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지금까지 매주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종종 생각하곤 한다. 정말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나였지만,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 또한 주님께 계속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싶다.

정재원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사역 간증

섬기러 왔다가 섬김을 받은 겨자씨 모임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청년1부 리더로 섬겼던 이에린 자매입니다 :) 저희 셀은 다른 셀들과 달리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섬긴 셀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부에 갓 올라온 친구부터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일을 하는 친구 등 다양한 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길고도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 후 셀 모임 시간은 단순히 성경공부 모임을 넘어 바쁘고 힘든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공감받기 어려웠던 신앙적 고민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로서 주신, 그리고 주실 비전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참으로 넘치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섬기러 왔는데 섬김받고, 사랑을 나누러 왔더니 넘치는 사랑을 도리어 받아서 셀원들에게 많이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면서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바쁘고 방향도 많은 청년의 시기에 꼬박꼬박 예배를 나오고 예배 후에 남아 재밌게 서로 재미있게 교제했던 셀원들을 보며 1년간 참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말씀처럼 1년간 하나님 안에서 방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시간처럼



내년,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에린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사역 간증

크리스천 대학생의 온전한 삶

대학생들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취업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듯합니다. 졸업을 앞두면,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듯 느껴집니다. 하다못해 여가시간을 보내려 해도, 무엇을 해야 내가 온전히 쉴 수 있을지,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또 만족할 수 있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신입생 때에 많이 겪는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도, 불현듯 찾아오는 만족스러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해, 무작정 휴학을 신청하고 자신을 만족시킬 무언가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면, 다들 그 압박에 못 이겨 그럴듯한 답을 하나씩 쥐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자리에서 기쁨을 찾는 친구도 있고, 게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도, 그 질문 앞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고민들을 들어보면, 학점과 취업,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지침은 언제나 마음 한 구석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자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천 대학생의 삶을 소개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먼저 알려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분위기에 억눌리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저 자신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 끝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의 가치와 만족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려 몸부림치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은 때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낙오되어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가치관들을 가르치며 그중 자신의 것을 빨리 선택하라고 재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학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아시는 분이심을, 또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격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고 있는 크리스천 대학생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인혁 / 청년부



청년숲 특집 | 사역 간증

하나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먼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공동체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주시고, 자의로는 나아올 수 없었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새가족 리더로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 리더로 부르실 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4년 전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말씀, 기도, 찬양은 어렵지 않았지만 공동체에 적응하고 스며드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찾아오시는 새가족 분들의 상당수가 기신자입니다. 물론 초신자 분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어색한 환경일 것입니다. 한 때 새가족으로서 고충을 겪었음에도 그 시절은 잊어버리고 작은 손길 하나 내밀지 않았던 스스로의 모습을 새삼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라면 아는 기본적인 지식을 나누거나 관심을 표현하기만 해도 정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부르심에 화답하여 새가족부에 들어오고 보니 대부분의 리더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배우고 배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주님 안에서 이곳에 오신 모든 영혼들을 환영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주일마다 기도회를 갖고, 셋째 주일에는 새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활동이나 아웃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를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내년의 사역을 기대함과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년도에 주님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진실 / 청년부



2019년을 마치며

청년부 임원단 소감

회장 김윤미(17기)

자격 없는 저를 귀한 섬김의 자리로 초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많이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응원을 보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을 넘치게 채워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은 청년들이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지는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부회장 이경태(23기)

1년간의 임원단, 부회장의 자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항상 보내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역이 진행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스스로 체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입니다.



1부 총무 김진수(25기)

“혼자 일할 수 없게 만드신 주님”. 지금도 그렇지만 임원단을 하기 전의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처리하는 것이 편했고, 제가 구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2018년 브릿지 팀장으로 섬길 때에는 팀원들에게 부탁이나 요청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독재 팀장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2019년 임원단 1부 총무로 부르신 날, 목사님의 설교 ‘내 안의 가시를 꺾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저는 제 자신을 꺾기 위해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꺾는다’는 것은 이 다섯 글자로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수련회와 여름수련회 모두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회칙 개정을 진행하면서도, 함줄함을 청년 특집호를 진행하면서도 저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다 낭패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저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여전히 꺾어야 할 부분이 차고 넘치는 저이지만, 앞의 사건들을 통해 제 안에 꺾어야 하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 이번 1년 동안에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부의 섬김의 자리에서 또 부름을 받는다면, 이전보다 더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2부 총무 김승원(19기)

“사랑하기에 바빴던 해”. 2019년은 정말 사랑하기에 바빴던 해였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올라오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이 공동체에서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공동체가 있었기에 제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올해에 다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다시 저는 이 공동체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임원단으로 섬기며 저는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단으로써 참 많은 일들로 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년을 돌아보니 결국 남은 것은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만들어가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계 유재현(20기)

안녕하세요, 2019년 한해 청년부 회계로 섬긴 유재현입니다. 학업과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정말 바쁜 한해였던 만큼, 임원단이라는 섬김의 자리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고 힘든 와중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로 구하면 청년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교만함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 성도로서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셔서 올 한해 섬김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회계 조윤정(13기)

2019년 회계로 섬긴 13기 조윤정입니다. 올 한해 임원단으로 섬기면서 ‘동행’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곱 명이 함께하면서 서로 힘들게 하는 순간도 있고 아파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한 명이 넘어지면 한 명이 일으켜 세워주고 한 명이 쓰러지면 또 다른 한 명이 힘이 되어 주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도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오만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임원단으로 섬기는 시간을 통해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임원단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서기 이형근(28기)

청년부 임원단이라는 자리는 제게 무겁게 다가왔었습니다. 처음 임원단 후보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당시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흔쾌히 임원단 후보의 자리를 승낙했습니다. 임원단 서기가 확정되었을 때, 소감으로 했던 말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해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과 청년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했었는데, 그렇게 한 해를 지낸 것에 감사합니다. 섬김이 힘들기도 했지만 섬기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감사이며, 그렇게 섬길 때,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제게 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제7회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
주최: (사)섬김과나눔 / 남녀선교회
후원: 안수집사회 / 전시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2019. 12. 15(주일) ~ 29(주일)

○ '사랑의 털모자' 제작 및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 접수
○ 주님의교회 1층 로비

*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 후원금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외 신생아, 결식아동, 무의탁어르신 등 불우이웃을 지원합니다.

아기나들이



김지현 아기

2019년 1월 2일생

1.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2. 가족을 중시하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3.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빠 김동혁 성도 / 엄마 김승주 성도, 2019년 12월 1일 3부 예배